

오타루에 얽힌 스토리

영화 ‘러브 레터(Love Letter)’의 무대이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와도 자매결연을 맺은 오타루에 얽힌 스토리의 중심은 이 도시의 시민들입니다. 오타루가 작은 어촌에서 주요 무역 거점으로 변모했을 때 중심이 된 오타루 시민들은 현재 일본에서 사적 보호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19 세기에 청어로 부를 쌓기 위해 북쪽의 변방 지역으로 이주해 온 어부들을 비롯해 오타루는 개척자 정신에 의해 발전해 왔습니다.

19 세기 말에 이르러 메이지 정부(1868 년~1912 년)가 자원이 풍부한 북쪽 섬인 홋카이도를 개척하고 사람을 정착시키기로 하면서 오타루는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882 년에는 내륙의 광산에서 오타루 항구로 석탄을 수송하기 위해 홋카이도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었고 이 석탄 덕분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업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일본의 대형 은행이 계속 증가하는 무역상과 상인, 해운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도시에 지점을 설립함으로써 1920 년대까지 오타루는 홋카이도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1960 년대에 이르러 국가의 에너지 주류가 석탄에서 석유로 옮겨갔습니다. 그 결과 오타루의 경제력은 서서히 쇠퇴했고 오타루는 석탄 선적항으로서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사용하지 않게 된 오타루 운하를 매립하고 창고를 철거하여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계획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타루 운하를 지키자는 시민운동이 일어났고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시 당국이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1980 년대에는 오타루 운하의 일부를 매립하고 오타루 운하의 남은 부분을 따라 산책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오타루는 역사적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사적의 보호에 성공한 도시로서 새로운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시민 주도의 운동이 일본 각지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 발전과 사적 보호의 균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